메트로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제2847호 www.metroseoul.co.kr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보세요…'수능 특별호'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배포

"8시10분까지 입실… 늦지 마세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6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찾은 수험생들이 고사장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수능은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57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능 응시자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뉴시스

폰 판매자들 모두 "뭘 잘못했나"

'27만원' 지키던 대리점도, '17만원 폰' 팔던 양판점도 불만소리 · "장사 접어야 할지 고민"

집중진단 '휴대폰 보조금'

<글 싣는 순서>
① 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② 이동통신사만의 책임인가
③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④ [르포]현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⑤ 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법적 잣대 맞춰가며 판매하고 있는 우리만 사기꾼 된 거죠. 하루빨리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주

"우리도 17만원 '갤럭시S4'의 피해자입니다. 왜 우리만 잘못한 것처럼 그러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차별적 판매 행위에 대해 지적한다는데 막상 우리도 지킬 건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롯데 하이마트 직원

과연 현장에서 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동 3사 대리점과 롯데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프라자, 신세계 이마트 등 양판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방문한 서울역 인근 A 휴대전화 대리점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대리점주 서모씨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님이 없다. 오늘 첫 손님이니 할인 많이 해드리겠다"며 다양한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서씨는 "사실 방통위의 단속이 심해져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도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27만원에 가깝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근 양판점에서 불거진 17만원 '갤럭시S4'에 대해 언급하자 서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만 사기꾼처럼 비춰지고 있어 답답하다. 오히려 법을 지키고 살면 사기꾼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기업(롯데·삼성·신세계)의 횡포 때문에 우리 같은 소상인들만 죽어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국회 분위기를 보니 연말쯤 단통법이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면서 "본사에서도 최근 실적 맞추기를 위해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압박하는데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리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만 1시간여. 이 시간 동안 손님은 4명밖에 보이질 않았다. 서씨는 "최근 보조금 논란으로 언제 손님들이 문의만 하고 다음에 오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빨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양판점 분위기는 어떨까. 같은 날 오후 봉천동에 위치한 한 양판점을 찾았다. 대뜸 '17만원 갤럭시S4가 혹시 아직도 있는가'라고 묻자 직원 김모씨는 "언론을 통해 17만원 갤럭시S4가 논란이 되면서 다 사라졌다"며 "한동안은 우리도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좀 잠잠해지면 다시 풀리지 않겠느냐"며 '17만원 갤럭시S4'의 재등장 가능성도 암시했다. <2면에 계속>

/서재필기자 [email] (partially legible)

서울 3억원 이상 전세 거래때 중개수수료 0.3%P 인하추진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전세 시세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3억원 이상의 전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명신(민주당) 서울시의원 등 14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3억원 이상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거래금액의 최고 0.8%에서 0.5%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3억원 이상 거래에 일괄 부과되던 수수료율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은 0.3%,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25%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다혜기자 yd@

국민연금 받은 국민이 잘못?

기자 수첩
김현정 <건설산업부 기자>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기존 금융사의 퇴직연금 연구소들도 일제히 은퇴연구소로 명패를 바꿔 달고 은퇴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사들이 관련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 은퇴 준비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게 아닌가란 의심도 든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개개인의 은퇴 준비는 본인이 알아서 대비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실상이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노후에 배고파질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사 연구원은 당초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우리나라 기대수명을 평균 70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80대까지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민연금 지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줄 돈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넘쳐나는 셈이다.

노후 준비를 '자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팍팍한 현실에 순응하는 예감을 주는 단어가 사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과거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지급 보장으로 하긴 어렵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의 암울한 전망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연금으론 겨우 먹고살 정도의 기본 자금을 받는 정도로 기대치를 낮추고 스스로 노후 대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 뉴스

정부부처 과장급 이상 5800개 직위 명부 공개

● 정부 부처의 과장급 이상 5800여 개 직위와 재직자 현황을 엑셀 파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위 명부'가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 5896개 직위의 재직자 성명과 직급, 담당 업무, 사무실 전화번호를 엑셀 파일 형태로 일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박영선, 국정원 댓글의혹 감사원 감사 첫 요구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감사원 결산에서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현행 체계와 법적 제약상 어려움이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휴대폰 매장 무차별 신설 막을 법적 제재 필요"

<1면에서 계속>

그는 "판매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살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번 17만원 갤럭시S4를 제재하려고 나서는 방통위와 공정위 등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막상 우리도 (관련 법상) 지킬 건 다 지키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볼 이익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돌려주며 더 큰 혜택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방문한 다른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지나치게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매장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림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이 동네만 해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점, 양판점까지 얼마나 많나. 서로 골목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하나 둘씩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제재를 하든지 뭔가 자격증을 만들든지 해야 포화된 시장에서 남아있는 소상인들이 먹고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짜라는 홍보문구가 눈에 띈다. /손진영기자 son@

굳게 닫힌 文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화록 멀쩡히 잘있다"

문재인 검찰 출석…"참여정부가 남겨놓은 것 여당이 빼돌려 대선 악용"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오후 1시47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문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남겨놓은 대화록을 여당이 빼돌리고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지켰고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따지는 격"이라고 비난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2007년 회담 이후 생산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미이관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삭제 또는 미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문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중기자 zuk.m@metroseoul.co.kr

서울시 내년 예산 24조…땅 팔아 재원마련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2% 늘어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6일 '2014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4조5042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936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 규모는 21조5678억원이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을 제외한 14조7122억원으로 4247억원 늘었다.

시는 내년 시세와 세외 수입이 13조5244억원으로 올해보다 176억원(0.1%) 감소하고,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줘야 할 법정이전경비는 늘어 가용 세수가 올해 대비 12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정 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4041억원 늘어나는 등 법정·의무 경비는 9341억원 늘어나 부족 재원 규모가 1조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재원은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적 부지를 팔아 3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3460억원, 만기 도래 지방채 차환으로 3000억원을 마련해 1조원 규모를 충당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 데는 많아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유지 매각 등 비상대책은 활용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영국 '대십자 훈장' 받은 박 대통령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짙은 주황색 저고리와 꽃무늬가 그려진 미색 보라색 치마의 한복에 여왕에게 수여받은 바스 대십자 훈장을 둘렀다. /연합뉴스

이 비 그치면 겨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낙엽이 떨어진 길을 시민이 걷고 있다 /뉴시스

3만분의 1 확률 '황금개구리'

아산 습지서 2마리 발견

황금색 몸통을 가진 황금개구리(사진) 두 마리가 국내 습지에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6월 초 충남 아산시 일대 습지에서 백색증 참개구리와 올챙이 두 마리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백색증은 멜라닌소포에서 멜라닌색소 합성이 결핍돼 발생하는 선천성 유전질환이다. 백색증을 가진 동물은 피부, 깃털, 모발 등에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눈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호색이 없어 포식자에 쉽게 노출되고 먹이를 잡기도 어렵다. 자외선에도 매우 약해 야외 활동을 잘 하지 않아 백색증 개구리가 발견될 확률은 약 3만분의 1에 그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고 과학원은 전했다. /조현정기자 jhj@

기초생활보장제도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맞춤형 급여제'로 변경

14만명 더 혜택받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 제도로 손질하면서 수급 대상자의 수가 14만 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급여 방식으로 운영하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주거비가 필요하면 주거비를 각각 지원해주는 쪽으로 급여 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의 수가 138만 명에서 152만 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14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3만 명에서 133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한다.

그래픽 박상철 ...@metroseoul.co.kr

주거급여 수급자는 108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44만 명 늘어나며 의료급여는 133만 명에서 12만 명 늘어난 145만 명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산·장제급여 수급자는 3만5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3000명 늘어난다. 교육급여는 2015년부터 개편돼 내년도 수급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201만원 미만인 가구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합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부양 가구의 월소득이 201만~275만원이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있는 월소득 275~392만원 사이의 가구는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해 급여 일부만 지급했다.

내년 10월부터는 부양 능력 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20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올려 월 286만원 미만을 버는 가구는 모두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를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jk...@metroseoul.co.kr

삭발하는 통진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의대회를 열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 김재연, 오병윤, 김재연,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통진당 사건' 주심에 진보성향 이정미 재판관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6일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출범 이래 첫 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재판관은 김이수(60) 재판관과 함께 헌재 내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3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김승준기자

스마트폰 도청 앱 사용자 원심깨고 실형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엄벌을 가했다.

스마트폰 도청 앱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래 설치돼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7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명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준기자

수입 강황가루에 중금속

수입 강황가루에서 중금속이 과도하게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방글라데시에 프랜 애그로(PRAN AGRO LTD)가 만든 수입 강황가루 '스파이스 파우더 터머릭(SPICES POWDR TUMERIC)'에서 기준치(0.1ppm)의 30~110배에 이르는 납(Pb)이 검출돼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러시아 10월혁명 발발

1917년 11월 7일(러시아 구력 10월 25일) 오전 10시, 트로츠키가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군이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이 기초한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혁명은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서유럽 선진사회가 아닌 유럽 최후진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뒤이은 레닌의 독재에 의해 빛이 바래고 만다. 이후 70여 년이 지나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의 무자비한 볼셰비키가 시작됐다.

금천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금천구 새마을부녀회는 6~7일 양일간 구청 광장에서 회원 약 200명과 함께 김장을 담근다.

이날 만들어진 750박스(박스당 10kg)의 김장 김치는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600가구와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12곳 신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간에서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10~20년간 무상으로 빌리고 구가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28일 종천 전동 숭가대학(이상 분교), 종암중앙석관 정릉제일 월곡순복음(이상 기독교) 등 12곳을 새로 마련했다.

성신여대 나이팅게일 선서식

성신여대는 5일 미아운정 그린캠퍼스에서 간호대 학생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본교 심화진 총장, 송지호 간호대학장을 비롯해 윤여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최규옥 간호대학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신여대 간호학과는 2007년부터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이어오고 있다.

멕시코 청소년 80% 무료문자앱 사용

metro Mexico

Mediantes fanáticos de apps de mensajería

멕시코 청소년들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새가 없다.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네이버의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도 인기다.

최근 휴대용 기기 모니터단(MAVAN)은 멕시코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의 무료 문자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문자 앱 순위에서 1위는 왓츠앱(84%), 2위는 페이스북(70%), 그리고 3위는 트위터(43%)가 차지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멕시코 청소년들이 문자메시지보다 앱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비용 때문이다. 인터넷망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은 유료 문자메시지보다 앱을 선호한다.

/게이블리 마을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中 스모그 휴교·휴업령

올겨울 심화 땐 강제명령 발동…야외 오리고기 굽기도 통제 대상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겨울 스모그'에 대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석탄 난방 등으로 스모그가 심각해질 경우 기업과 초·중 고교는 탄력근무제와 휴교령을 실시하도록 하고, 야외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6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겨울 스모그 관련 통지문을 발송,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부의 통지문에 따르면 '적마 스모그' 발생 시 기업과 학교는 서둘러 문을 닫고 직원과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생산라과 오리고기 굽기 등의 야외 활동도 환경보호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스모그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강제 조치가 내려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최악의 스모그에 대비한 강제성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고 등급인 적색(1급) 경보 상황 등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스모그 발생 일수가 5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1~10월 전국의 평균 스모그 발생 일수는 4.7일로 집계됐다. 예년 같은 기간 중국의 스모그 발생 일수는 2.4일로 그 절반 수준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용 석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심각한 겨울 스모그가 발생,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이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5~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세전화 부주임은 "중국에서 스모그는 일상화됐다"며 "향후 5~10년간 엄격하게 관리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sseem@metroseoul.co.kr

또 테러? 중국 긴장 6일 중국 산시성의 한 건물 입구에서 연쇄 폭발사건이 발생한 군 차량의 창문이 깨진 가운데 부서진 정문 너머로 공안의 모습이 보인다. 이번 사건은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톈안먼 테러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여 만에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테러 관련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P 뉴시스

오바마 지지율 39%로 추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제도) 웹사이트의 접속 장애 등으로 미국민이 분노해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 2011년 10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갤럽은 오바마의 국정 수행능력 지지도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개설 이후 급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의 지지도는 6월 말 이후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13.67 (-6.28)	525.98 (-2.74)	2.88 (-0.01)	1061.00 (변동없음)

뉴스&뉴스

한국 국가브랜드 세계 9위

●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인 '코리아'가 세계 국가 브랜드 가치 9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도시 브랜드 1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는 기업 브랜드 부문에서 1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산업정책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에서 국가와 도시, 기업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는 전세계 3?개국 중 1조9000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해 9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illegible]기자

전기요금 연내 오를 전망

● 올해 내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기요금 조정 요율 및 시기와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선언했고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조정 논의가 진행된 바 있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2011년 8월 평균 4.9%, 같은 해 12월 평균 4.5%, 2012년 8월 평균 4.9% 인상된 바 있다. /[illegible]기자

제조업계 "내년 후반 회복"

● 국내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7곳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내년 하반기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산업연구원(KIET)은 466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가 경기 회복 시점이란 응답이 35.8% 비율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이란 응답이 35.6%로 근소하게 2위를 차지했다. /[illegible]기자

연금복권520 제12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2조	311342
		4조	811055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77310
4등	100만원	각조	53479
5등	2만원	각조	071
6등	2000원	각조	45, 31
7등	1000원	각조	3, 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 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7100
독자센터 02)721-9785
2002년 5월 31일 창간 (일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98

금융강국 꿈꾸는 중국 '진격의 10년'

글로벌 이코노미

중국 정부의 금융규제 빗장이 열릴까? 10년 안에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를 제치고 국제통화 자리를 꿰찰까?

오는 9~12일 중국의 향후 10년 개혁 청사진을 확정할 제18기 중국공산당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장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최근 '383 개혁안'을 발표, 3중전회의 밑그림을 그렸다. '383 개혁안' 보고서는 정부·시장·기업 3대 주체 및 토지·금융 등 8개 중점 개혁 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 개방 및 독점 산업 규제, 토지 소유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 개방은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금융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또 위안화를 10년 안에 국제 결제 통화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포부도 읽힌다.

국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줄이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93년 제14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 등을 확립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이 신경제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illegible]기자

'바닥환율' 앞 주식보다 환테크?

L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진행과정

"동양 투자 원금 못받나…" 주저앉은 희망들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삼성생명빌딩에서 열린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피해 투자자 보호관련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로부터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기이후 최저인 1060원 - 바이코리아 주춤
외환전문가들 "당국 개입의지 확고해 연내 반등"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움직임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은 올해 8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4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들이며 시장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순매도로 돌아서며 기록 행진을 끝냈다.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매도 움직임은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 수준인 1060원까지 떨어진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환율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환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환 당국은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의사를 밝히며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환율이 1055원을 하향 이탈하자 "과도한 쏠림이 계속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이지형 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 기록한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당국도 개입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처럼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환 테크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커진다.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면 거치식 예금인 정기예금에 가입해 예금금리 이외에도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도 유리하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시총 '1조클럽' 무려 53개사 증가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1조 클럽'을 구성하는 업종이 최근 5년간 지각변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1조 클럽에 가입된 기업 수는 최근 5년간 102곳(2008년 말)에서 155곳(지난달 말)으로 53곳(52.0%) 늘었다.

이들 기업의 시총 합계 역시 491조원에서 1061조원으로 116.3%나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2008년엔 시총 상위권에 들지 못하던 자동차·부품과 문화 콘텐츠 및 정보 서비스, 보험 업종이 지난달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반면 통신, 건설, 석유로 등은 시총 상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룹별로는 1조 클럽에 총 16개 계열사를 포함시킨 삼성그룹의 독주가 여전했다. 5년간 시총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기업은 시총이 999.7%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아자동차였다. /[illegible]기자

펀드 판매보수 내리자 '펀드런'

당국 '장기투자 장려' 안먹혀

직장인 A씨는 1년 정도 붓던 펀드를 최근 환매했다. 판매 보수가 부담스러워 환매를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보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펀드의 평균 총비용비율(TER)은 지난 9월 말 기준 0.8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2007년 12월에 1.72%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내년 3월 말에 펀드 가입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 등장하면 운용사들이 온라인의 특성을 감안해 보수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에서는 펀드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수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융사들의 펀드 운용을 지도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보수 인하가 오히려 잦은 환매를 부추기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수가 낮아지면서 펀드 자금의 유출입이 활발해진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또 금융사의 수익 악화로 양질의 금융 인력이 빠져나가 펀드 수익률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우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삼성 애널데이' 권오현 부회장

"7년뒤 매출 4000억불 이대로 간다면 달성"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비전2020'을 통해 오는 2020년 매출 4000억 달러를 기록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성장세라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권오현(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애널리스트 데이 2013'에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과 성장 사업이 시장 성장 이상의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 부회장은 '비전 2020' 달성을 위해 기존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사업 구조를 헬스케어, 편의·안락, 환경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즈니스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비전 2020'을 발표한 자리에서 매출 4000억 달러로 IT업계 압도적 1위, 글로벌 10대 기업으로 도약 등을 목표로 잡았다.

권 부회장은 세부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와 프리미엄 부품 시장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일부 스마트 디바이스와 SSD, OLED 등 프리미엄 부품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부회장은 삼성의 핵심 역량으로 연구 인력을 꼽았다. 현재 32만여 명의 직원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25%가 연구 개발 인력이라는 것이다. /김민규기자 kmg@

대형APT '인기부활' 몸부림

부분임대형 설계로 실속파 잡고 펜트하우스 배치해 노블파 유혹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를 틀기 위한 건설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실속형 평면을 선보이는가 하면, 아예 집빈대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계속된 약세 속 천덕꾸러기 전락

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지역 대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7% 하락하며 2011년 3월 이후 31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이에 반해 소형 아파트는 9월 0.20%에 이어 10월에도 0.26%가 상승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 역시 9월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가 5만5398건, 초과가 1만3690건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라고 분위기가 다르지는 않다.

지난 10월 SK건설이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분양한 '인천 SK 스카이뷰'의 경우 전용 59㎡ 소형은 4개 타입만 순위 내 1.21대 1로 마감했을 뿐, 85㎡ 초과 대형은 모집 가구수(886가구)의 대부분인 635가구에서 미달이 됐다.

취향대로 담는 '길로 어묵탕' 6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골라 담아 100g당 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길로 어묵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해야 팔린다" 수요자 향해 승부수

대형 아파트는 집값 하락, 미분양 등의 주범이라는 안 좋은 인식이 퍼지면서 건설사마다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승부수를 띄우며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속파를 잡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롯데캐슬리치' 114㎡ B형에 '부분임대형 설계'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최근 경기 불황과 수명 연장으로 '노후 대비'가 직장인들의 관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현대건설은 위례신도시 '위례 힐스테이트'에 무려 45가지 평면을 선보이며 수요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췄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펜트하우스를 배치하는 '노블 마케팅'도 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에 센트럴파크, 서해, 도심 등의 트리플 조망권을 갖춘 펜트하우스를 설계해 6개월 만에 모두 계약되는 계기를 이뤘다.

대우건설은 또 위례신도시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지하 주차장에 서비스 공간인 가구별 창고를 별도로 설계해 대형 아파트 계약자에게는 더 퍼주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K9, 얼른 도와줘"

판매량 감소한 美시장 내년 상반기 투입 예정

내수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워즈오토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한 120만2000대가 팔렸으며, 2013년 1~10월 판매는 8.3%포인트 증가한 1294만2000대로 집계됐다.

미국 업계인 GM(15.7%)과 포드(14.2%), 크라이슬러(10.7%) 등 빅3는 모두 선전했다. GM은 캘리부 부분변경 모델 출시 효과와 픽업 신차 판매 회복, 대형 SUV 호조로 판매가 대폭 늘면서 하반기 최고 점유율(18.8%)을 달성했다. 포드도 퓨전 판매 증가와 함께 F시리즈 픽업과 이스케이프, 익스플로러 등 SUV 호조세가 지속됐다.

일본 업계는 닛산(14.2%), 토요타(6.8%), 혼다(7.1%)가 지난달 부진에서 벗어나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10월 누적 판매 105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가 감소했다. 현대차는 2.0%포인트 증가했지만, 기아차가 4.4%포인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K9(미국 판매명 K900)을 내년 상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 판매 가격은 5만~7만 달러(약 5450만~763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현지 딜러들은 예상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2013년 11월 한우 1등급 「소비자 참고가격」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구입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산정한 자료입니다]

매장유형별로 지역별 참고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점포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육점 소비자 참고가격 (단위: 원/100g)

구분	등심	안심	채끝	양지
서울강북	5,200	5,291	5,760	3,596
서울강남	4,980	5,066	5,065	3,406
인천	5,046	5,562	5,182	3,467
광주	5,237	6,305	5,377	3,585
부산	5,388	5,373	5,322	3,916
대구	4,796	4,778	4,877	3,282
울산	5,387	5,459	5,459	3,674
경기	4,075	4,594	4,606	3,337
강원	5,635	5,613	5,036	3,098
충북	5,288	5,358	5,380	3,824
충남	4,095	5,040	5,030	3,351
전북	5,315	5,348	5,345	3,597
전남	4,734	4,776	4,825	3,269
경북	5,171	5,156	5,157	3,471
경남	4,857	4,748	4,747	3,192
제주	5,194	5,780	5,279	4,195

▽농협판매장 소비자 참고가격 (단위: 원/100g)

구분	등심	안심	채끝	양지
서울강북	5,905	8,132	8,004	3,626
서울강남	5,993	8,100	8,004	3,636
인천	5,983	8,130	8,004	3,698
광주	5,879	8,058	5,969	3,668
부산	5,945	8,135	8,027	3,690
대구	5,916	8,135	8,007	3,658
울산	5,945	8,125	8,027	3,692
경기	5,923	8,100	8,004	3,636
강원	5,951	8,131	8,026	3,657
충북	5,957	8,132	8,031	3,657
충남	5,957	8,137	8,058	3,657
전북	5,873	8,098	5,989	3,709
전남	5,851	8,088	5,988	3,688
경북	5,945	8,135	8,007	3,692
경남	5,945	8,135	8,007	3,692
제주	8,132	8,317	8,215	3,784

▽대형할인마트 소비자 참고가격 (단위: 원/100g)

구분	등심	안심	채끝	양지
서울강북	5,263	7,253	7,123	4,476
서울강남	5,253	7,253	7,123	4,476
인천	5,263	7,263	7,168	4,476
광주	5,217	7,149	7,070	4,443
부산	5,292	7,230	7,130	4,485
대구	5,200	7,230	7,146	4,429
울산	5,290	7,230	7,130	4,485
경기	5,263	7,303	7,128	4,478
강원	5,288	7,244	7,164	4,504
충북	5,259	7,244	7,164	4,504
충남	5,289	7,244	7,164	4,504
전북	5,217	7,149	7,070	4,443
전남	5,217	7,149	7,079	4,443
경북	5,292	7,230	7,130	4,485
경남	5,292	7,230	7,130	4,485
제주	5,484	7,457	7,284	4,636

(광고)

나이가 많아도, 건강에 자신 없어도 'OK실버보험'은 가입 가능

50~81세까지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가입2년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1 나이 늘수록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던 강주호씨(71세 제천) 많은 나이 때문에 그동안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화 한 통으로 보험 가입에 성공했다.

사례2 신은숙씨(68세 부산)는 잦은 잔병치레와 고용증이 약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얼마전 신문을 보던 중 자신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즘 전국방방곡곡에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실버세대들이 늘고있다. 그 화제의 중심에는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이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망보장보험으로 부진단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50세에서 81세 어르신이라면 나이와 병력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남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강씨는 나이가 많아도 이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과 같은 동년배들을 OK실버세대라고 칭했다. 뒤늦게 가입한 보험에 매우 만족한 모습이었다.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매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갱신 가능 최고나이 81세)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임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 가능 (50세~60세) *가입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되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 *계약자가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61~80세 가입가능한 국내최초 실버전용 암보험 관심집중

14개 노인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암진단비 보장

나이가 많고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데 암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암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를 핑계 삼아 어르신들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보험사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에서 국내 최초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 전문보험이 출시되며 이런 풍토가 크게 바뀌었다.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나이가 많아도 14개 노인성질환(고혈압, 골다공증, 백내장, 추간판탈출증, 천식, 알레르기, 협심증, 부정맥, 퇴행성 관절염, 척추협착증, 녹내장, 고지혈증, 노인성난청, 노인성황반변성)이 있어도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암보험은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 뇌암, 골수암도 보장하며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암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다. 또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길게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이가 많아서 암보험을 들기 어려웠던 60~70대들이 암을 대비하기 쉬워졌다.

자세한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080-951-8585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임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 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가입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지급 *현재 및 과거 질병 사고내용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규제'에 웃는 알뜰폰

방통위 이통 3사 집중 감시속 하루동안 가입자 2000명 늘어

정부의 이동통신 과열 보조금 엄벌 방침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줄면서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경쟁이 한풀 꺾인 지난 1일 이통 3사는 모두 가입자 순감을 기록했지만 알뜰폰은 가입자 순증세를 기록했다.

SK텔레콤 804명, KT 215명, LG유플러스 1122명 등 각각 가입자가 순감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총 2141명 순증했다.

알뜰폰의 선전은 중소 알뜰폰 업계보다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견인했다.

지난 1일 CJ헬로비전이 800여 명, SK텔링크가 600여 명 가입자가 순증해 이들 두 업체의 가입자가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순증의 65.4%에 달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방통위의 보조금 감시가 이통 3사에 집중된 가운데 일부 알뜰폰 업체들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01X→010' 번호 변경 앞당겨

미래창조과학부는 011, 016, 017, 018, 019 등 01X 번호 이용자 중 3G, LTE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용자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010으로 순차적 번호 변경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미래부는 12월 31일까지 01X 번호를 유지토록 했으나 통화량이 급증하는 12월 말에 010으로 번호를 변경할 경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용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변경 일자를 다소 앞당겼다.

/[illegible]기자

노후대비, 암보험으로 든든하게

AIG '명품부모님 보험'

고령의 나이에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누리는 '골든 에이지(Golden Age)'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AIG손해보험은 이를 고려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암보험인 '명품부모님 보험'을 내놓았다.

50~75세면 암 보장에 가입할 수 있고 암 진단비와 함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3대 질병도 선택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금은 물론,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할 때마다 수술비와 입원비(180일 한도)를 선택 보장받게 된다.

본인 선택에 따라 필요한 보장만 골라 들 수 있어 실속적이다. 또 담보를 구성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걱정 없다.

최근 국내 암보험 가입률 통계를 보면 전체 연령대는 2009년 말 기준 56.4%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에 불과했다.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은 암 보험료조차 버거워 가입이 저조한 편이다.

최근 국가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고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남자는 폐암에, 여자는 대장암에 가장 많이 걸렸다.

문의: 080-432-0166

'e편한세상 경산신대' 분양

고려개발이 오는 8일 경북 경산 신대부적지구 4-1블록 'e편한세상 경산신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6개 동, 전체 35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 158가구 ▲84㎡ 200가구로 구성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을 걸어서 10분대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 대학로를 통해 경산시내는 물론 대구 수성구 일대와 진량산업단지, 자인산업단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마트(경산점), 홈플러스(경산점), 롯데시네마, 시외버스터미널, 경산시청, 세명병원, 경산생활체육공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3.3㎡당 600만원 초중반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문의 전화: 053)793-7722

직장인 대출 '아이스탠다드론'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의 '아이스탠다드론'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인터넷 대출상품으로, 365일 24시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3.5%이며,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11월에는 홈페이지에서 특별 금리 한도 혜택 받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대출 신청 시 한도 우대 및 최대 3%까지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566-7799

IT기술 따라 진화하는 '커닝기술'

지난달 27일 토익 고득점자 염모(27)씨는 150만원을 받고 토익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염씨가 왼팔에 두른 붕대 안에는 초소형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가 답안지를 촬영해 토익 브로커에게 보내면 브로커는 다른 응시자 12명에게 답을 전했다. 응시자들은 귓속 2㎜ 초소형 유청수신장치로 답을 전해 평균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았다.

피처폰 메시지 옛말…사진앱·초소형 이어폰 악용

IT 발달에 따라 커닝 역사도 진화했다.

7일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커닝 부정행위 감시가 높아졌다. 2004년 11월에는 300여 명의 수능 응시생이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던 시기에 터진 이 사건 이후로 정부는 수능날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10년 사이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커닝 도구도 진화했다. 예전에는 피처폰 문자메시지가 주된 커닝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초소형 송수신 장치, 사진 자동전송 앱, 음성 인식 기능 등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두 업그레이드됐다.

덩달아 부정행위 감시 기술도 발전했다. 수능시험 고사장마다 전파 탐지기가 작동하며 각종 전문 인력이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총동원된다. 이마저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큰 시험에 국한될 뿐이다.

매달 열리는 토익 시험은 첨단 커닝 기술 박람회와 같다. 토익 고득점자와 브로커가 한세트 초소형 이어폰, 렌즈, 스마트 기기로 답을 실시간 공유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한국토익위원회는 토익 만점자가 다시 시험을 치거나 타지에 사는 응시자가 대거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경찰에 부정행위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한다.

/정은미기자 unique@metroseoul.co.kr

동영상 보면서 동시에 채팅 즐겨요 6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모델들이 한 화면에서 사진과 영상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채팅을 즐길 수 있는 '유플러스 셰어 라이브(U+Share Live)'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 실감나는 'PS4' 다음달 17일 출시

게임 마니아들이 학수고대해온 소니의 신형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4' 가격이 49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PS4의 국내 출시일은 12월 17일로 정해졌으며 이스케이프 플랜, '킬존 섀도우폴' 등 19개의 타이틀도 같은 날 나올 예정이다.

PS4는 공간의 깊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카메라인 'PS 아이'를 탑재해 더욱 실감 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PS 비타' 등은 세컨드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SCEK는 이용자들이 PS4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도록 이달 말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kmlee@

구석구석

2013 서울북페스티벌

◆서울북페스티벌
– 날짜: 11월 7~9일
– 장소: 서울 중구 서울광장

시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축제다. '공유 공부 공감'이라는 주제로 이(異)한 독서 밤의 도서관, 가을엔 책 선물 캠페인, '아빠 어디가? 도서관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1인극 테이블 공연 형태로 구성된 '그림책 작가의 몸짓'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장님 책 읽어주세요~' 와 같은 행사는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청송사과축제
– 날짜: 11월 8~11일
– 장소: 경북 청송군 청송사과공원

'청송 사과! 행복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우선 소비자가 생산지에서 최고 품질의 청송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사과 판매에 중점을 둔 사과 판매 거리를 조성한다. 또 풍물공연과 지역 예술인 공연, 매직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사과도깨비 퍼레이드 및 사과 춤 경연대회, 영케스티벌 등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속초 아바이마을 양도루묵축제
– 날짜: 11월 8~17일
– 장소: 강원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일원

겨울 특산물인 도루묵의 판로 확대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는 어민이 직접 기획하고 어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하는 삶의 체험 축제로 진행된다. 특히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루묵 그물 따기와 도루묵 즉석 경매, 노래자랑 등이 마련되고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와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여주 쌀과 고구마로 나눠 열리다가 올해 여주 오곡나루축제로 새롭게 태어난 축제는 여주쌀밥과 군고구마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 관광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다.

가마솥밥 '후후' 군고구마 '호호'

8~11일 신륵사관광지 일원서 '여주 오곡나루축제'

알차게 익은 오곡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제15회 여주 오곡나루축제'가 '쌀 쌀' 할 때는 고구마가 최고야~ 라는 주제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기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무르익은 오곡백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제의 멋과 맛이 당신을 초대한다.

◆알차게 여물어가는 오곡의 별미

축제는 전년도까지 여주 특산물인 쌀과 고구마를 주제로 한 진상명품축제와 고구마축제로 나눠 각각 개최됐다. 하지만 다양한 곡식을 아우르는 오곡과 예전 수운도시의 명성을 상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축제 명칭을 오곡나루 축제로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11월은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의 오곡이 가장 알차게 여물어 가는 때라 축제는 더욱 풍요롭고 따스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는 또 다른 여주의 상징인 황포돛배를 활용한다. 관람객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여주 쌀, 고구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쌍방향 마당극 '내음넘도 여주 고구마와 쌀 없이는 못 살아!'가 개막 행사로 공연되는데 등장 인물들이 영월리부터 황포돛배를 타고 이동하며 공연이 시작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맛의 깊이가 다른 쌀과 고구마

축제에서는 여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쌀과 고구마의 진정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여주 쌀은 태종이 여주에서 먹었던 쌀밥을 그리워해 여주 현감이 여주 쌀과 물을 떠 한양으로 올려가 임금에게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맛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여주 고구마 역시 지금이 수확철이라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미드라마에서는 조테랑 장작불 고구마 굽음 활용해 고구마를 구워 먹는 행사가 옛 추억이 묻어나는 장작불 냄새 속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달콤한 고구마를 맛볼 수 있다. 또 바로 옆 마당인 오곡주막에서는 대형 가마솥으로 여주 쌀 비빔밥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대형 가마솥에 밥을 지어 윤기가 자르르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주 쌀밥과 나물, 고추장 등을 참가자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며 관광객들은 갓 지은 여주 쌀밥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액션 페인팅 퍼포먼스 이색 재미

축제는 먹거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나루마당에서는 화가와 관객들이 함께 커다란 천에 물감을 뿌리고 던지며 그림을 그리는 액션 페인팅이 열린다. 즉흥극으로 각색한 갑돌이와 갑순이 공연도 펼쳐진다. 또 나루터를 주제로 캐리비언 해적처럼 벌어지는 퍼포먼스, 여주와 나루터에 얽힌 이야기를 관객들이 함께 들려받아 들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서 동물마당에서는 아이들이 한우, 송아지, 조랑말, 돼지, 토끼 등의 가축과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동물농장이 운영되고 바로 옆 동물경주장에서는 돼지, 토끼의 동물 경주대회가 개최된다. 이외에도 천하장사 이대현의 씨름 강습과 빠써름과 따씨름 시범, 그리고 어린이나 가족 단위로 겨루는 씨름대회도 이어진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11월 8~11일(월~금요일)
– 장소: 경기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일원
– 문의: 오곡나루축제추진위원회 031)887-2932

명성황후 생가 보고 황포돛배 타고

여주는 오곡만큼 다양하면서 때묻 없는 놀거리가 많다. 그 색다른 재미에 빠져보자.

◆자연의 위대함, 황학산 수목원

황학산 수목원은 자연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습지원, 석정원, 산열매원, 미니 가든, 향마리 정원 등 식물의 생태와 기능에 따라 특화된 14개의 테마 정원은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해준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굴레 군락 복원 등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청정한 환경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몸과 마음 모두의 힐링이 가능하다.

◆ 조선의 국모 를 만나다

여주에서는 또 조선 제26대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가 살던 생가를 만날 수 있다. 1687년(숙종 13년) 왕의 장인 민유중의 묘막(墓幕)으로 건립됐는데 당시에 세워진 안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또 명성황후 생가 맞은 편에 위치한 명성황후 기념관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건립된 곳으로 명성황후와 고종의 영정 등을 비롯한 관련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이와 함께 명성황후가 8세 때 여사해 왕비 간택 전까지 머물렀던 감고당도 중건돼 있다.

◆여주의 팔경 절경을 한눈에

지난 2005년 고증을 거쳐 건조한 목선으로 재유 운항을 시작한 황포돛배는 지난 9월부터 운항 노선이 확장됐다. 강변유원지 선착장을 출발해 신륵사에서 세종대왕릉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물길을 따라 영릉구, 세종대왕릉·효종대왕릉을 비롯해 여주의 자연경관 유적 안암(安巖)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황재용기자

열공시간 끝, 클릭할 시간

G마켓·옥션 등 온라인몰 '수험생 무료' 행사 풍성

국내 온라인몰들이 수험생 고객을 잡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다. 수능시험 이후 진행하는 문화공연 혜택을 비롯해 문화상품권 증정, 외식상품권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예비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는 수능시험 이후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달 17일까지 G마켓 휴게이지를 통해 영화 '결혼전야' 시사회에 응모하면 140명을 추첨해 1인 2매씩 티켓을 제공한다. 시사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이며 무대인사를 통해 주연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G마켓이 운영하는 큐레이션 쇼핑몰 'G9'에서도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e쿠폰을 판매할 예정이다. 9일과 10일에는 시험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피자세트, 커피·햄버거 세트, 영화관람권 패키지를 비롯해 샐러드바·불고기세트 등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외식 상품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저렴하게 외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교환권도 선보일 예정이다.

옥션에서는 헬시이트 모바일을 통해 고3, 재수생을 대상으로 옥션 이머니,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2013 옥션 수능 이벤트'를 펼친다. 수능 당일인 7일부터 13일까지 1994~95년생인 회원이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옥션 이머니 받기'를 클릭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옥션이머니를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5000원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jeona@metroseoul.co.kr

와! 샐러드바 일년간 무료

빕스 등 레스토랑 체인들 수험표 지참시 할인 경품

국내 식음료 업계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CJ푸드빌의 스테이크하우스 '빕스'는 7일부터 10일까지 매장을 방문한 수험생들에게 스테이크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테이크 주문 시 샐러드바 이용은 무료. 주문 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 식사 시 1매, 5인 이상 식사 시 최대 2매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 행사 기간 중 스테이크를 이용하고 CJ ONE카드로 적립한 수험생들에게 행운번호를 발행, 추첨을 통해 14학번 새내기가 될 수험생 14명에게 '2014년 빕스 연간 샐러드바 무료 이용권'(월 1회, 1인 이용 가능)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100명에게 뮤지컬 '그리스' 관람권, 40명에게 'DJ DOC 콘서트 관람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씨푸드 레스토랑 '씨푸드오션'과 '피셔스마켓'은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문 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식사 금액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자이니즈 레스토랑 '차이나팩토리'도 7일부터 30일까지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생 본인의 식사 금액 중 30%, 차이나팩토리 딜라이트 매장은 신메뉴인 '홍시오로우와 씨파이'를 30% 각각 할인해준다. 행사 기간 동안 '수험생 응원 온라인 이벤트'도 펼쳐 자사 홈페이지에 대학 합격 기원 응원 댓글을 남기는 모든 고객에게 '1인 식사 금액 50% 할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뚜레쥬르 럭키 스위츠 등 경품을 제공한다.

/정혜림기자

박준뷰티랩 '원장회의' 패밀리십 끈끈

헤어살롱 30년 전통 이을 프로모션·윤리강령 설명

헤어살롱 박준뷰티랩은 최근 본사 뷰티앤케이에서 전 지점 가맹점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장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원장회의 1부에서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만 11개 직영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인이자 경영인 마슈가 '급성장 살롱 경영과 직원 관리 비밀'에 대해 특강을 했다. 마슈는 20개 매장에 신입으로 입사한 사원들을 성장시키는 과정 등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점주들에게 전달했다.

2부에서는 본사의 각 부서(영업·교육·CS·마케팅팀)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준뷰티랩 관계자는 "보고의 변화, 적극적인 온라인·SNS 활동, 새로운 프로모션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이끌어가는 본사의 모습에 점주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천기제 사장이 본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등 관계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준뷰티랩 관계자는 "올해 박준뷰티랩은 안팎으로 내실을 다져나가며 헤어살롱 30년 전통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며 "이번 원장회의를 통해 박준뷰티랩의 강한 패밀리십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지원기자

한우사골·이천쌀 넣은 '격이 다른 라면'

팔도 '한우설렁탕면' 출시

팔도는 한우 사골과 이천 쌀 등 고급 원료를 넣은 '한우설렁탕면'을 출시하며 프리미엄 라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한우설렁탕면은 한우 사골을 푹 고아 우려낸 액상수프가 들어있어 국물 맛이 진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사골 원료는 100% 한우 사골만 사용했으며 팔도의 30년 동안 축적된 액상수프 기술력으로 정통 설렁탕 맛을 재현해냈다. 면에 이천 쌀을 첨가해 부드럽고 쫄깃하다. 가격은 1500원(125g).

류종렬 팔도 연구부문장은 "우리나라 정통 설렁탕 맛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소, 우리 쌀을 원료로 만들었다"며 "팔도가 1986년 '설렁탕면'을 국내 최초로 출시해 시장을 선도했던 만큼 '한우설렁탕면'을 설렁탕면 시장에서 대표 제품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수능날 아침 '아몬드 바나나 스무디'로 든든

수능날 아침을 걸러 체력이 떨어지거나 긴장감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스무디킹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수능날 아침 가방 속에 꼭 챙겨야 할 '잇 푸드'로 '하이프로틴 아몬드 바나나 스무디'를 추천했다.

든든하게 포만감을 주는 바나나와 단백질 파우더를 함께 블렌딩한 하이프로틴 아몬드 바나나 스무디에는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일일 단백질 섭취량의 최대 35%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

이와 함께 두뇌 발달에 필요한 오메가3가 풍부한 아몬드, 두뇌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바나나 등이 들어있어 수험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한 잔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다.

/서지원기자

태국의 낭만 '러이 끄라통'

이달 중순 열리는 전통축제 지역별 다양한 볼거리 자랑

태국관광청은 12월에 열리는 태국 전통 축제 '러이 끄라통'이 오는 17일을 전후로 태국 각 지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러이 끄라통은 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통 축제 중 하나로 태국어로 작은 배라는 뜻인 바나나 잎이나 연으로 만든 작은 연꽃 모양의 끄라통에 초나 향, 꽃 등을 넣고 행운을 기원하며 강이나 호수에 띄우며(러이) 소원을 비는 축제다.

러이 끄라통은 각 지역마다 축제의 형태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지역 축제는 수코타이 지방에서 열리는 러이 끄라통 촛불 축제다. 13일부터 17일까지 수코타이 역사공원을 배경으로 전통 공연, 미인 선발 대회와 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끄라통 띄우기, 불꽃놀이 등이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진다.

또 방콕에서는 19일부터 3일간 짜오프라야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등불을 띄워서 보내는 라타나꼬신 시대의 왕실 축제를 재현하고, 17일 아유타야 지방에서는 '러이 끄라통 탐 쁘라딥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와 함께 치앙마이에서는 이 축제를 '이펭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며 '콤러이'라고 불리는 등불 풍선을 하늘에 있는 신에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재원기자

쿠첸밥솥 '문제의 뚜껑' 교체

부품마찰로 금속가루 발생 소보원 권고따라 무상수리

리홈쿠첸의 전기압력밥솥 뚜껑에서 금속 가루가 떨어지는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하고 해당 제품은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리홈쿠첸의 전기압력밥솥(모델명: WHA VF1077G) 뚜껑에서 부품 간 마찰로 금속 가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를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할 것을 회사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발생된 금속 가루의 성분은 마찰을 일으키는 개폐 부품과 상판의 재질과 동일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리홈쿠첸은 부품 간 마찰을 줄여 가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을 자발적으로 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매된 3만3147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사용 중인 전기압력밥솥이 해당 제품일 경우 가까운 리홈쿠첸 서비스 센터에서 조속히 수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일기자 ymw@metroseoul.co.kr

제주신라호텔 핫한 레저 '트램핑' 손짓

'트레킹+캠핑' 패키지 야외 온수풀에서 스위밍도

제주신라호텔이 제주의 겨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과 캠핑을 더한 아웃도어 여행 '트램핑'을 새롭게 선보인다.

트램핑은 트레킹과 캠핑의 합성어로 제주신라호텔이 만든 신조어다. 트램핑을 즐기는 이들은 '트램퍼'로 칭한다.

오전에는 제주신라호텔 레저 전문직원 G.A.O(Guest Activity Organizer)의 안내로 오름 트레킹·곶자왈 트레킹·올레길 걷기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제주의 자연을 즐기면 된다. 트레킹화·스틱·배낭 등은 호텔에서 빌릴 수 있다. 호텔 차량으로 트레킹 지점까지 이동하고 간단한 준비운동 후 트레킹을 시작한다.

1시간30분~2시간가량 트레킹을 즐긴 후 노꼬메 오름 옆 소나무 숲에 가면 완벽하게 세팅된 텐트와 호텔 주방장들이 제주산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가 트램퍼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신라호텔 관계자는 "캠핑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몸만 와서 캠핑의 낭만만 즐기면 된다"며 "특히 이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 흰 눈꽃이 만드는 화려한 설경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이 되면 호텔에서 하루의 피로를 푼다.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며 따뜻한 온수풀과 자쿠지에서 문라이트 스위밍과 스파를 즐기고, 야외 풀사이드에 마련된 핀란드 사우나에서 이국적인 제주의 밤을 만끽한다.

'윈터 트램핑 패키지'를 이용하면 더욱 다양한 혜택과 함께 트램핑을 즐길 수 있다. 패키지에는 트램핑 2인, 와인파티 2인 입장권, 객실 내 미니바 무료 이용, 라운지 S 2인 이용, S카 이용(6시간), 조식 2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제주신라호텔 블로그에서는 트램핑 원정대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추첨을 통해 왕복 항공권 2인과 윈터 트램핑을 즐길 수 있는 제주신라호텔 2박3일 숙박권을 증정한다. 문의 1588-1142 /박지원기자

수험생 가족 '알뜰 외식' 하세요

강강술래 최대 5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수능시험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알뜰 외식 이벤트를 벌인다.

홍대점은 10일까지 한우모둠구이·한돈양념구이 등 모든 구이 메뉴를 50% 할인한다. 또 매장 연기 메뉴인 술래양념 돼지양념 등 포장상품도 1+1 행사를 통해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시흥점도 9일까지 매장에서 술래양념구이와 한돈양념구이를 시키면 각각 동일한 메뉴를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포장해 무료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콜라겐과 콘드로이친이 많이 함유돼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좋으며 칼슘은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정통 한우떡갈비(3세트·1080g·4만2000원)와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3세트·1080g·2만52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한우양념불고기(500g)도 50% 할인된 1만3900원에 선보인다. /박지원기자

KT&G '토니노 -' 한정판

KT&G는 국제 담배박람회와 간연세품 박람회 중품을 기념해 '토니노 람보르기니 크리스피' 한정판을 판매한다.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애연가들을 위해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한 맛을 구현했으며, 일반 필터보다 단단한 3중 튜브필터를 써 담배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품의 타르 및 니코틴 함량은 각각 5.0mg, 0.50mg이며 가격은 갑당 2700원.

잇몸건강 위해 치간칫솔·치실 사용해야

플라크 제거해 치주병 예방 소비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

최근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잇몸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로 인해 잇몸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강보조용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오랄케어 브랜드 '2080'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도 구강보조용품 판매존이 확대 운영되면서 치간칫솔을 비롯해 치실 등 기능성 구강보조용품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 업체의 매출 분석 결과 올 3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적이 직전 3개월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잇몸 건강에 무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치약과 칫솔을 제외한 구강보조용품 사용 실태는 치실 사용률 11.1%, 치간칫솔 사용률 11.8%, 구강세정액 사용률 17.3% 등이었다.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8~9명은 구강보조용품을 미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 구강 건강관리 방법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약 사용 대비 구강청결제 소비량은 약 15%, 치약 사용 대비 치실 소비량은 1%에 불과하다. 반면에 미국은 치약 사용 대비 약 55%의 구강청결제 소비량, 약 15%의 치실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치약에 의존한 구강관리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애경 중앙연구소 덴탈케어팀 신경훈 연구원은 "양치질을 꼼꼼히 하더라도 숨어있는 세균까지 제거하기는 어렵다"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크는 구강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은 플라크를 치실, 치간칫솔 등의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해 꼼꼼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일기자

G
Musical
아가씨와 건달들
IN 1929 NEW YORK
13.11.1~14.1.5 BBC 씨어터 (압구정)
럭키찬스 최대 30% 할인
김다현 류수영 송원근 김지우 이하늬 박준규 이율 신영숙 구원영 이지나
www.guysanddolls.co.kr

뮤지컬에 늘 목마른 '굿 액터'

'고스트'로 4년만에 무대 복귀 주원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천천루 배우"로 성장한 배우 주원(26)이 4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왔다. 최근 종영된 인기 드라마 '굿 닥터'로 행복한 시간을 누린 주원이 이번엔 영화 '사랑과 영혼'으로 잘 알려진 뮤지컬 '고스트'에서 샘 역을 맡았다. 그는 뮤지컬에 전념하기 위해 2년여간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KBS2 '1박2일'까지 하차했다. 바쁜 스케줄에 몸살까지 났지만 주원은 밝았다.

/유순호기자 ysw@metroseoul.co.kr

◆ 작품에 푹~ 무한행복

주원은 2006년 '알타보이즈'로 처음 무대에 선 뮤지컬 배우 출신이지만 2010년 드라마 데뷔 후 줄곧 TV와 영화에서 활약해왔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뮤지컬 무대보다 방송을 통해 만나는 주원이 익숙하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주원의 마음속 한편에는 뮤지컬 무대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었다.

"오랜 기간 신중하게 고심한 끝에 선택했어요.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뮤지컬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고스트'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고,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작품이라는 점에서 요즘 주원은 뮤지컬 '고스트'에 푹 빠져있었다.

"샘이라는 인물과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 '사랑과 영혼'을 스무 번 넘게 봤어요. 특히 다른 배우들보다 조금 늦게 투입됐기 때문에 10시간 넘게 연습을 하고 있죠. 몸은 지치지만 정말 행복해요."

◆ 짝임새 완벽한 대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굵직한 대작들이 잇달아 개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 시즌 한국 초연 무대를 갖는 '위키드'와 '고스트'가 뮤지컬 업계에서 돌풍을 이끌고 있다. '위키드'가 화려한 의상과 무대를 앞세워 흥행에 성공했다면 '고스트'는 높은 완성도와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켰다.

"주인공이 유령인 만큼 마술과 영상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영혼이 된 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첨단 기술을 동원했지만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순박한 사랑이죠. 특히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노래 사이에 들어가는 대사의 짜임새가 완벽해요."

여기에 원작 '사랑과 영혼'과 '고스트'의 차이점도 줄거리로 작용한다.

주원은 "원작에서는 샘이 죽기전 물레를 돌리며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고스트'에서는 샘이 죽음을 맞이한 후 영혼으로 등장해 몰리와 물레를 돌리는 게 다른 점이다"며 "그 장면이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 '1박2일' 과의 추억

주원은 뮤지컬 '고스트'를 선택하면서 '1박2일'에서 하차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특히 엄태웅을 비롯해 이수근, 차태현, 성시경, 김종민 등 출연진과 형제애를 과시할 정도로 정이 쌓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1박2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주원은 잠시 얼굴 위로 미소를 머금더니 "연습하느라 본 방송은 못 봤는데 나 나가고 나니까 시청률이 올랐더라. 역시나 그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웃었다. 이어 "형들은 내가 더 나은 것을 위해 '1박2일'에서 하차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잘돼라'는 격려를 해줬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며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고스트'에는 주원 외에 김준현, 김우형(샘 위트 역), 아이비, 박지연(몰리 젠슨 역), 최정원, 정영주(오다 메 브라운 역), 이창희, 이경수(칼 브루너 역) 등이 출연하며 24일부터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사진/홍경아(다온드림)
디자인/박은지

샤이니·엑소… SM군단 릴레이 무대

내달 21일부터 9일간 공연 – "국내 최대 K-팝 축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연말 공연 시장에 대규모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M은 다음달 21~29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에프엑스·엑소 등 6팀의 간판 가수들의 공연을 릴레이로 개최한다.

'SM타운 위크'라는 이름의 이번 공연은 SM이 최초로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 축제다.

SM은 "각 가수들의 질 높은 콘서트가 연달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약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요기획사 중 최초로 소속사 합동 공연인 'SM타운 라이브'를 만들어 세계적인 K-팝 브랜드로 성장시킨 SM은 'SM타운 위크'로 또 한 번 공연 시장에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중 티켓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연말 공연계에 SM의 등장으로 타 가수들의 티켓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샤이니
동방신기
에프엑스

이번 공연은 다음달 21일 샤이니 공연을 시작으로 22일 소녀시대, 24~25일 에프엑스와 엑소, 26~27일 동방신기, 28~29일 슈퍼주니어 순서로 개최된다. 26일은 동방신기의 데뷔 10주년인 만큼 이번 공연은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로 꾸민다.

SM은 "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 역시 각각의 투어 공연과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어서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티켓 예매는 12일 오후 8시부터 G마켓을 통해 공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 티켓뿐 아니라 전 공연(8회)을 관람할 수 있는 올 티켓과 4개 공연을 선택 관람하는 초이스 티켓도 11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유순호기자 sunx@metroseoul.co.kr

손담비 중국 시장 진출

가수 손담비(사진)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점령에 나선다.

손담비 소속사 플레디스는 중국 위에화 엔터테인먼트와 공식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6일 밝혔다. 위에화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최고 인기 남녀 가수로 꼽히는 한경과 주필량을 비롯해 실력파 뮤지션 황정, 발라드 황제인 이두 등이 소속된 회사다. 중국 연예기획사 중 유일하게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한국 기획사 중 플레디스와 유일하게 교류를 시작한다.

11일 중국 베이징 만화 연회홀에서 합작 전략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손담비를 비롯한 플레디스 소속 가수들과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100여 개 매체에서 취재 신청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유순호기자

조정치·정인 '소박한 결혼'

예식없이 여행 가기로 – 이달 혼인신고

가수 정인(사진 오른쪽)과 기타리스트 조정치(왼쪽)가 11년 연애 끝에 마침내 부부가 된다.

두 사람은 이달 말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 전 양가 부모와 가족 모임 형식으로 예식을 대신할 계획이다. 조정치 소속사 마스탁89 측은 "이미 작업실로 쓰던 연남동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치가 현재 라디오 DJ를 맡고 있어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지리산 종주를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가수 커플인 이효리와 이상순이 9월 조촐한 모임 형식의 결혼과 함께 장기간 유럽 배낭여행을 떠난 데 이어 정인·조정치 커플도 새로운 결혼 문화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조정치는 KBS 2FM '조정치 & 하림의 2시'를 진행하고 있다. 정인은 최근 새 앨범 '가을여자'를 발표했다. /유순호기자

신승훈 '돈 대신 음향'

개런티 전액 제작비에 투입

가수 신승훈(사진)이 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하는 '2013 더 신승훈쇼-그레이트 웨이브'의 개런티 전액을 제작비에 투입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CJ E&M 콘서트사업부 측은 "콘서트의 총 제작 비용은 시스템 35%, 아티스트 개런티 30%, 대관 및 마케팅 20%, 인건비 10%, 기타 운영비 5%로 구성된다"며 "이번 공연 비용은 시스템 제작비에 65%가 책정되는 등 사상 최대 물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체조경기장 3회 공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고 밝혔다.

신승훈은 2004년부터 브랜드 콘서트인 '더 신승훈쇼'를 기획해 매년 전국투어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단 한 번의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개런티를 모두 투자한 그는 CD 수준의 음향과 최상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연출을 지휘한다.

신승훈은 지난달 23일 발매한 미니앨범 '그레이트 웨이브'로 이틀 만에 2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변함 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이번 공연에는 앨범에 참여한 버벌진트와 라디 등이 신승훈 공연 최초의 게스트로 출연한다. 공연에는 오케스트라, 브라스 밴드 등 10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유순호기자

star bag

전 여친 상대 2억원 소송

중견 배우 백윤식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K씨를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백윤식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백윤식과 두 아들은 허위사실 유포,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등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곧 형사 고소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 오리콘 주간 4위

JYJ의 김재중의 솔로 정규 1집 'WWW'후 현 와이가 일본 오리콘 종합 주간차트 4위를 기록했다.

'WWW'는 일본이 발매가 아닌 한국에서 발매된 것으로 일본에서 정식 홍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매 성적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소속사는 "차트에 공식 집계가 안 되는 수입 음반사에 팔려나간 물량까지 반영한다면 순위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단독 콘서트

가수 윤상이 크리스마스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윤상은 25일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당신의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편지'라는 이름으로 공연한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손편지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음악 선물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무대를 꾸민다. 친구, 연인, 가족에게 즉석에서 편지를 낭독해주는 '비밀 손편지'라는 관객 이벤트도 마련한다.

애프터스쿨과 'SNL' 출연

애프터스쿨과 가희가 tvN 'SNL 코리아'에 동반 출연한다.

CJ E&M은 6일 "애프터스쿨과 가희가 16일 방송에 호스트로 출연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초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솔로 전향을 위해 애프터스쿨에서 탈퇴한 가희가 예전 멤버들과 재회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환상의 섬 이비자서 화끈한 러브스토리

-'섹슈얼 아일랜드' 14일 개봉

쌀쌀한 늦가을 극장가에 지중해의 환상적인 섬 이비자를 배경으로 화끈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로맨스 영화 '러빙이비자: 섹슈얼아일랜드'가 개봉일을 14일로 확정했다. 누구보다 화끈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플레이어, 오디션 프로 출신의 잇 걸, 보톡스로 젊음을 유지하는 중년 여성, 세계적인 DJ를 꿈꾸는 쌍둥이 형제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진 피서객들이 이비자를 찾아 뜨거운 사랑과 꿈을 펼치는 이야기다.

6일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모델처럼 예쁜 여인 엘자를 두고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이벤트 플래너 라지에게 끌리는 축구스타 케빈과 과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원부와의 사랑을 나누는 21세 꽃제니 베비 등의 등장해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섹시하고 유쾌하게 담아냈다. 또 이비자에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아름답고 화려한 풍경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요람 니센버스키 연출을 맡고 안 루이즈핀 선네 보겔 등이 출연한다. 세계적인 DJ 이민 반 뷰렌도 특별 출연한다. /최진환기자

최승현

김우빈

이종석

여진구

스크린, 여기도 꽃남 저기도 꽃남

김우빈 출연 '친구2'·최승현 주연 '동창생' 등 잇단 개봉

늦가을 스크린이 젊음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동창생(6일 개봉)의 최승현, 친구 2(14일 개봉)의 김우빈 등 첫 주연에 나선 젊은 미남 배우들의 활약이 줄줄이 이어진다.

빅뱅의 탑으로 잘 알려진 최승현은 이번 영화에서 남파 소년 간첩을 맡아 전체 분량의 80% 이상을 소화하면서 첫 주연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총격신, 격투신 등 강도 높은 액션신부터 아픔과 순수함을 오가는 섬세한 감정 연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스크린에 녹여내 한층 성장한 연기력을 뽐냈다.

'친구 2'에서 전작 '친구'에 등장했던 동수(장동건)의 숨겨진 아들 역을 맡은 김우빈은 거친 반항아 캐릭터를 기대 이상으로 표현해내 걸출한 신인 배우의 탄생을 알렸다. 그는 곽경택 감독과 줄곧 호흡을 맞춰온 유오성·주진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개봉된 '노브레싱'에서 수영선수로 출연한 이종석과 서인국도 탄탄한 몸매와 호연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초 개봉된 '화이'의 여진구 역시 5명의 범죄자 아버지를 상대로 복수에 나서는 화이 역을 어린 나이답지 않게 성숙한 연기력으로 소화했다.

물론 이들의 열연과 흥행이 흥행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일례로 '노브레싱'은 요즘 가장 핫 하다는 두 배우를 투톱으로 내세웠지만 김기수 손예진 주연의 '공범'에 밀려 개봉 1주일째 31만여 명을 동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7일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15세 관람가인 '노브레싱'이나 '동창생' 등은 수능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늑대소년'이 수능일에만 34만1476명을 동원하며 흥행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진환기자 (ak0427@metroseoul.co.kr)

포미닛 '헝거게임' 홍보대사

가요계 여전사 포미닛(사진)이 할리우드의 여전사 제니퍼 로렌스의 지원군으로 나선다.

포미닛은 로렌스 주연의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21일 개봉)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18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관에서 진행될 특별시사회에 참석해 무대인사를 진행한다. 특히 현아는 혼성 듀오 트러블메이커로 바쁘게 활동 중인 가운데에도 홍보대사로 합류해 눈길을 모은다.

영화에서 주인공 캣니스 역을 맡아 할리우드 대표 여전사로 등극한 로렌스와 '이름이 뭐에요?' '올 좋아?' 등을 히트시키며 건강하고 섹시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포미닛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영화는 7억 불의 흥행 신화를 기록한 '헝거게임'의 속편이다. /최진환기자

'엔더스 게임' 우주전쟁 경험하는 듯

올 마지막 블록버스터 주목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엔더스 게임'이 올해 마지막 블록버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엔더스 게임'은 사이언스 픽션 어워드 중 최고 권위의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제작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트랜스포머' '다크 나이트' 제작진과 '엑스맨 탄생: 울버린'을 연출한 개빈 후드 감독이 의기투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영화는 외계의 공격을 받은 인류가 천재적 전략을 지닌 13세 소년 엔더(아사 버터필드)를 지구를 지켜낼 단 한 명의 영웅으로 선택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흥미로운 스토리는 우주전쟁을 직접 경험하는 듯한 화려한 스케일과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더 역의 아사 버터필드는 우주 함대의 최고 지휘관이 되기 위해 무중력 훈련, 시뮬레이션 전쟁 등 어떤 영웅도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해리슨 포드가 혹독한 훈련으로 엔더를 최고의 지휘관으로 성장시키는 그라프 대령 역을 맡았고, '아이언맨 3'에서 만다린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벤 킹슬리가 엔더의 멘토가 되는 메이저 래컴으로 등장한다.

코엔 형제의 영화 '더 브레이브'로 단박에 할리우드의 신성으로 떠오른 헤일리 스테인펠드가 우주 함대의 유일한 여전사로 출연하는 등 할리우드의 대세 배우와 신예가 조화를 이뤘다. 국내에는 다음달 개봉하며 1일 미국에서 개봉돼 지난 주말 흥행 수익 2800만 달러(약 297억원)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

오프라 윈프리 '버틀러' 열연… 오바마에 극찬받아

15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사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극찬을 받아 화제다.

28일 국내 개봉될 영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에서 주인공인 백악관 집사 세실 게인즈(포레스트 휘태커)의 아내 역을 열연한 윈프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한 후 "훌륭한 여배우"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 영화는 34년간 8명의 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집사 유진 앨런의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다. 전미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최진환기자

오리지널 '리골레토' 온다

원작 완색·퇴폐코드 살려 예술의전당서 22일부터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매제 속에 공연된 '리골레토'가 오리지널 무대 그대로 국내 관객과 만난다.

이 작품은 수지오페라단의 송년 오페라 공연으로 22~2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올해 9월 일본 도쿄의 NHK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한국에 상륙하게 됐다.

베르디의 16번째 작품으로 빅토르 위고의 연극 '환락의 왕'이 원작이다. 16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아름답고 잘나운 건달한 바람둥이 공작 만토바에 대항해 궁중의 어릿광대 리골레토가 복수극을 펼치는 과정을 비극적으로 그렸다.

라스칼라 극장과 동일한 출연진이 출연한다.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활약하는 바리톤 조지 기났제의 레채로 '글로리아 루라의 여왕' 텔러나 모스트가 각각 주인공 리골레토와 질다로 나선다.

특히 이번 공연은 원작의 원색적이고 퇴폐적인 코드를 살려 시대적인 분위기를 사실적이고 대담한 연출로 살려냈다. 1막 만토바 공작의 난교파티 장면 등 수위 높은 장면으로 인해 관람 대상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티켓 가격은 3만~25만원. 문의 02)542-0350

/박준환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커플 9쌍의 9가지 사랑 이야기

'올모스트메인' 11일 공연

ALMOST MAINE by John Cariani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10주년 기념 공연 개막작인 연극 '올모스트메인'이 11일부터 대학로 예술마당 4관에서 관객과 만난다.

오로라가 보이는 가상의 마을 올모스트에서 아홉 쌍의 커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아홉 개 에피소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솔직 담백한 사랑 이야기다. 미국 초연 당시 현지 언론과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나와 할아버지' 등에서 신선한 감각을 선보인 민준호가 연출을 맡고 우상욱·진선규·홍우진·김지현·정선아 등 극단 소속 배우들이 모두 참여한다.

또 노진원·김늘매·오용·최대훈·임기홍 등 대학로를 대표하는 14명의 배우들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1600-3523

/박준환기자

아! 류현진…ML 신인왕 불발

3명 후보에 못들어 — "추신수 FA 외야수부문 1위"

류현진(26·LA 다저스·사진)이 한국인 첫 메이저리그 신인왕 수상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6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닷컴)에 공개한 내셔널리그 신인왕 상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내내 신인왕 후보로 거론돼왔지만 올해 신인왕은 투수 라이벌인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와 셸비 밀러(세인트루이스), 팀 동료 야시엘 푸이그(다저스) 등 3파전으로 좁혀졌다.

BBWAA는 이날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사이영상·감독상 후보도 함께 공개했다.

류현진의 팀 동료인 클레이튼 커쇼가 호세 페르난데스, 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와 사이영상을 놓고 경쟁한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후보에는 다르빗슈 유(텍사스), 이와쿠마 히사시(시애틀), 맥스 슈어저(디트로이트)가 이름을 올렸다. 일본인만 두 명이 포함됐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프레디 곤살레스(애틀랜타), 클린트 허들(피츠버그) 감독과 함께 NL 올해의 감독상을 다툰다.

또 다른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31)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추신수는 미국 야후스포츠가 6일 공개한 2013 메이저리그 포지션별 FA 순위에서 외야수 부문 1위에 올랐다. 야후스포츠는 추신수의 출루율을 높이 평가하며 "2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현역 가운데 추신수보다 나은 출루율을 기록한 선수는 조이 보토(신시내티)·알버트 푸홀스(에인절스)·랜스 버크만(텍사스)·조 마우어(미네소타)·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 등 5명뿐이다. 이들 모두 최우수선수와 올스타에 뽑힌 선수들"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현지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하나같이 올해 FA 최고 선수로 꼽아왔던 보스턴의 자코비 엘스버리를 2위로 밀어냈다는 점에서 추신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전체 선수 중에는 로빈슨 카노(양키스)와 일본의 괴물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라쿠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CBS스포츠의 칼럼니스트 존 헤이만은 이날 "에이전트와 단장은 6년에 1억1000만 달러를 추신수의 몸값으로 부르겠지만 나는 6년에 1억2000만 달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아시아서 유럽으로… 우즈 '대륙간 티샷'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드라이브샷을 날렸다. 우즈는 5일 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대교 위에서 열린 터키 에어라인스 오픈 2013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했다. 보스포러스 대교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로, 우즈는 아시아쪽인 난간에서 유럽으로 공을 날려보냈다. /손쉬 연합뉴스

장원삼·최준석·강민호 FA선수 21명 쏟아진다

프로야구 겨울 시즌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10일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올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 21명을 공시했다. 미국과 일본 진출을 노리는 오승환을 비롯해 장원삼·박한이(이상 삼성 라이온즈), 손시헌·이종욱·최준석(이상 두산 베어스), 이대형·이병규·김일경·권용관(이상 LG 트윈스), 송지만(넥센 히어로즈), 강민호·박기혁·김영식(이상 롯데 자이언츠), 정근우·박경완(이상 SK 와이번스), 윤석민·이용규(이상 KIA 타이거즈), 박정진·한상훈·이대수(이상 한화 이글스) 등이다.

여느 해보다 대어급 FA가 많이 풀린 가운데 지난해 류현진의 포스팅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한 한화가 올 시즌 FA 시장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FA 승인을 신청한 선수는 10~16일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할 수 있다. 계약이 불발되면 FA는 17~23일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계약하지 못하면 2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비롯해 9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용순호기자

KCC·모비스 4연승 행진

프로농구 전주 KCC가 연장 접전 끝에 원주 동부를 꺾고 단독 3위로 올라섰다.

KCC는 6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주 동부와의 홈 경기에서 92-89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린 KCC는 7승3패를 기록하며 리그 3위로 올라섰다. 반면 동부는 6연패에 빠졌다.

KCC는 이날 신인 김민구가 3점슛 2개를 포함해 20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강병현(17점), 장민국(15점), 타일러 윌커슨(17점)도 득점에 가세했다.

같은 날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모비스와 부산 KT의 경기에서는 모비스가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78-49로 압승했다. 4연승을 거둔 모비스는 8승3패로 단독 2위에 올랐다. 이날 패배한 KT는 공동 2위에서 공동 4위로 내려앉았다. /하정민기자 <연합>

프로농구 전적 6일

KCC	24	21	13	25	9	92
동부	20	19	16	29	5	89
모비스	17	14	21	26		78
KT	13	17	15	4		49

프로배구 전적 6일

도로공사	0	3	인삼공사
LIG손해보험	3	1	삼성화재

손흥민 공격포인트 실패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네 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쌓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6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돈바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4차전 샤흐타르 도네츠크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32분까지 뛰었다.

레버쿠젠은 0-0으로 비기며 승점 7을 기록했다. 이날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과 득점 없이 비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A조 2위를 지켰다.

손흥민은 이날 후반 14분 한 차례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지만 골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용순호기자

"성별검사 수치심… 안 무너진다"

女 실업축구 박은선 심경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실업축구 선수 박은선(27·서울시청·사진)이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은선은 6일 페이스북에 "월드컵, 올림픽 때도 성별검사 받아서 경기 출전했는데 그때도 어린 나이에 수치심을 느꼈다. 지금은 말할 수도 없다"며 "어떻게 만든 나 자신인데 더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구단 감독들은 박은선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은선이 내년에 리그에서 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리그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은선은 "날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걱정하던 분들이 날 죽이려고 든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팀 왔을 때와 비슷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날 데려가려고 많은 감독님이 내게 잘해주다가 돌변했다. 지금도 그렇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은선은 또 다른 구단들을 겨냥한 듯 "단단히 지켜봐라. 여기서 안 무너진다. 수작 다 보인다. 더는 안 넘어진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서울시청은 7일 오전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힌다. /용순호기자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